

지역 소식통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창군이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9억원(1만566건)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임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납부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2021 지역방역일자리 28일까지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제고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지역은 공고일 현재 만18세~만39세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방역업무가 주어지며, 근무기간은 약 3개월(주 30~40시간)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방투자촉진 100억 확보

고창군, 엄지식품 북분자 농공단지 공장 신축 혜택 기업유치 탄력... 지역경제 활력·일자리창출 기대

고창군이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명목으로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 엄지식품 고창공장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100억원을 포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5억원을 확보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보조금 확보를 통해 (주) 엄지식품의 북분자농공단지 고창공장 신축에 혜택을 받게 됐다.

(주) 엄지식품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손만두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창업 후 30년간 만두를 포함한 다양한 냉동조리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북분자 농공단지 내 2만628.4㎡ 부지에 2023년 8월까지 5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북음밥 제조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16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 엄지식품은 농생명식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고창의 강점을 극대화한 지역맞춤형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배리앤비오연

구소와 협업을 통해 고창의 특산품인 북분자, 청보리, 장어 등을 활용한 고창 북분자밥, 청보리 비빔밥, 장어달걀 등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주) 엄지식품의 마영모 대표는 "30년간 축적된 당사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고창의 대표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열악한 제조업 환경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민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정읍시 작은도서관 3곳 21권 출간... 17~24일 전시회 열려

정읍지역 아이들과 어른신 다문화 이주여성 등 주민이 직접 작가가 되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전시회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정읍시 작은도서관에서 출간한 도서 21권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도서는 실버작은도서관과 다문화작은도서관, 꿈꾸는 작은도서관의 책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집필한 책 21권이다.

실버작은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합본집 1권과 개인별 그림책 10권을 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어르신은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흔적들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또, 다문화작은도서관은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엄마 나라 책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정읍지역 아이들과 어른신, 다문화 이주여성 등 주민이 직접 작가가 되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전시회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 입점업체 모집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이 입점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높을고창몰은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 축소와 온라인 시장 확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창

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 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과 단체다.

신청방법은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를 통해 입점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2021년 1월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온라인 거래 확대와 내수 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업체에 고창군 통합쇼핑몰인 '높을고창몰'의 입점이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와 쇼핑몰 내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계획간척지 쌀 10톤이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

부안 계획간척지 쌀 유럽 수출

10톤, 약 3300만원 상당... 독일·오스트리아 등 6개국

부안군 계획간척지 쌀 10톤이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되는 계획간척지 쌀은 4kg 기준 1080포와 10kg 기준 576포로 수출액은 약 3300만원 가량 예상되며 공급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 거주하는 한인이다.

계획간척지 쌀은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찰진 성분이 풍부해 좀 더 쫄쫄 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출을 주도한 계획면 최병문 씨는 직접 쌀농사를 짓는 생산농기이자 쌀가공 공장인 영농법인 꼬마농부 팜의 대표이며 전북 전주에 주)에이네 시아라는 수출대행사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병문 씨는 한 농가가 생산·가공·유통을 전부 포괄해 성과를 낸 사례라 의미를 더했다.

최병문 씨는 "팜과 정성으로 지은 쌀이 유럽의 교포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로개척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어려움을 뚫고 부안군 농산물이 세 번째 수출길에 올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우수한 농산물이 해외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인재 장학금 기탁 줄이어

한농연 626만원·산수들 300만원·정읍한돈협회 300만원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연일 이어지며, 지역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한농연(김태선 회장)은 16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626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장학금은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지난 11월에는 김태선 회장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태인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산수들 박성진 대표도 같은 날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도축업(소, 돼지, 양, 사슴, 토끼, 말)을 하고 있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읍한돈협회(지부장 이성수)도 이날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탬다.

정읍한돈협회는 1989년에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회원 수는 88명이다.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돼지고기 기탁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유진섭 이사장은 "장학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우리 지역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t lists symptoms of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